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법과 정치’수업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Law and Politics’ class for the Adolescent’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Politics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고 진 영

‘법과 정치’수업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모 경 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고 진 영

고 진 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현대 사회는 전쟁, 환경파괴, 범죄,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외의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참여의식은 높지 않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시민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교육의 한 방법인 공식적 교육과정으로서 사회과교육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고등학교 사회 선택 과목인 '법과 정치'는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 시민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정치'수업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 여부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지각한 수업 풍토가 정치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사회 선택 과목을 이수하고 2014년 2월에 졸업한 전국 인문계열 대학 1학년 학생 5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사회 선택 과목인 '법과 정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2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법과 정치'수업을 처음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2014년 2월 졸업자이다.

연구를 위해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여부와 ‘법과 정치’수업의 개방적 수업 풍토점수를 독립 변인으로 하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는 $p<.05$수준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대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치참여의 항목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달기, 상품 불매운동하기, 도로봉쇄하기, 공공건물 점거하기 4개의 항목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합법적·비합법적 항의활동 항목에서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청소년들의 점수가 이수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점수보다 더 높았다.

두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지각한 수업 풍토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수업을 실시해 논쟁문제토론 자체가 많이 실시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논쟁문제토론과 관련된 수업 풍토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민교육으로서 사회과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우리나라 시민들의 자질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과가 입시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풍토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과 내에서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수업 풍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수업 풍토가 학교현장에서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법과 정치, 공식적 교육과정, 수업 풍토, 논쟁문제수업, 정치참여, 정치참여의도

학 번 : 2012-21385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2
3. 용어의 정의 ····· 3
(1) 수업 ····· 3
(2) 청소년 ····· 4
(3) 참여 ····· 4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 5
(1) 연구의 의의 ····· 5
(2) 연구의 한계 ····· 6

Ⅱ. 이론적 배경 ····· 7
1. '법과 정치'과목에서 참여의 강조 ····· 7
(1) 목표적 측면에서 참여의 강조 ····· 7
(2) 내용적 측면에서 참여의 강조 ····· 9
(3)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참여의 강조 ····· 10
2. 청소년의 정치참여의도 ····· 12
(1) 정치참여 ····· 12
(2) 정치참여의도 ····· 18
3. '법과 정치'수업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 23
(1) 수업의 이수여부가 미치는 영향 ····· 23
(2) 수업 풍토가 미치는 영향 ····· 25

Ⅱ. 연구설계 ····· 31
1. 연구문제 ····· 31
2. 연구대상 ····· 31
3. 연구변인 ····· 34

(1) 독립변인 ····· 34
(2) 종속변인 ····· 34
(3) 통제변인 ····· 35
4. 조사도구 ····· 37
5. 분석방법 ····· 39

Ⅲ. 연구결과 ····· 40
1. 변인별 수준 ····· 40
(1) 독립변인-개방적 수업 풍토 수준 ····· 40
(2) 통제변인-정치사회화 수준 ····· 41
(3) 종속변인-정치참여의도 수준 ····· 43
2. '법과 정치'수업 이수에 따른 정치참여의도 수준 ····· 44
(1) 독립변인간 단순상관관계 분석 ····· 45
(2) 종속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46
3. '법과 정치'수업 이수에 따른 항목별 정치참여의도 수준 ····· 48
4. '법과 정치'수업의 수업 풍토에 따른 정치참여의도 수준 ····· 51
(1) 독립변인간 단순상관관계 분석 ····· 52
(2) 종속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53

Ⅴ. 결론 ····· 55
1. 요약 및 논의 ····· 55
2. 제언 ····· 57

참고문헌 ····· 59
부록 : 설문지 ····· 65
Abstract ····· 71

표 목 차

<표-1> Verba & Nie(1972b)의 미국인 참여실태 조사 ····· 13
<표-2> Barnes & kasse(1979)의 정치참여유형분류 ····· 15
<표-3> Parry, Moyser & Day(1992)의 정치참여유형분류 ····· 16
<표-4> 2009 ICCS의 정치참여유형분류 ····· 17
<표-5> 사회과 수업 풍토연구의 종속변수 ····· 22
<표-6> 사회과 수업 풍토의 구성 ····· 26
<표-7> 연구대상의 인원구성(성별) ····· 32
<표-8>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빈도분포 ····· 33
<표-9> '법과 정치'수업 이수자 비율 ····· 33
<표-10> 개방적 수업 풍토 기술통계 ····· 40
<표-11> 정치사회화 기술통계 ····· 42
<표-12> 정치참여의도 기술통계 ····· 43
<표-13> 연구문제 1의 독립 변인간 상관관계 ····· 46
<표-14> '법과 정치'수업 이수와 정치참여의도 회귀분석 모델 ··· 47
<표-15> '법과 정치'수업 이수 여부에 따른 항목별 정치
참여의도 차이 ····· 49
<표-16> 연구문제 2의 독립 변인간 상관관계 ····· 52
<표-17> '법과 정치'수업의 수업 풍토와 정치참여의도
회귀분석모델 ····· 53

그 림 목 차

<그림-1> 계획된 행동이론 ····· 20

Ⅰ. 서론

1. 문제제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뤄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로 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참여에 있어서 연령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어 청소년들도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칙제정과 학교운영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를 외치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국내외의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참여의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식과 관련한 국내의 대표적 연구인 모경환 등(2004, 2010)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좋은 시민의 자질 9가지 중에서 “정치적 참여와 관여”를 8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모경환·이정우, 2004), 참여의식 평균은 Likert식 5점 척도에서 3.25로 자신의 의식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알지 못하는 편에 가깝다고 밝혔다(모경환 외, 2010). 또한 지난 2009년 국가간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을 비교한 연구인 세계시민교육연구 (2009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2009 ICCS)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 지식수준은 높은 반면 시민의식 관련 태도나 참여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현대 사회는 전쟁, 환경파괴, 범죄,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안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시민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연

계된다. 결국 무엇이 청소년들을 미래의 참여적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대중매체 등 다양한 매개체의 영향을 받아 시민성을 갖춰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생의 신분으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고 그만큼 학교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교 정규교육에서는 주로 사회과가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가 실제로 청소년들의 참여적 시민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식적 교육과정으로서 사회과교육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법과 정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법과 정치'수업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회과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오늘날의 사회는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과에서도 시민의 자질 함양이라는 목표 아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 자질을 새로운 시민의 자질로 보고 사회과의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2009 개정 고등학교 사회 선택 과목인 '법과 정치'는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 시민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2009 사회과 교육과정,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법과 정치'수업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 여부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지각한 수업 풍토가 정치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을 통해 ‘법과 정치’수업이라는 공식적 교육과정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교사의 수업 실행 방식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배제한 것으로 단지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했는지의 여부가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연구문제 2)를 통해 ‘법과 정치’를 담당한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만들어낸 ‘수업 풍토’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공식적 교육과정으로서의 ‘법과 정치’수업을 교사가 어떻게 실행했는지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2014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문계열 대학 1학년 학생들로 만18세부터 만19세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19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들은 현재 다양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를 고려하여 현재 정치참여활동을 측정하기 보다는 미래의 정치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도를 측정하였다.

3. 용어의 정의

(1) 수업

최용규 외(2007)는 “수업은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계획성과 목적을 가지고 교육과정이라는 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교수와 수업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교수는 무엇 무엇을 가르치는 것으로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며 바람직한 내용과는 관계없고,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행하는 활동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공식적인 교육과정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청소년

청소년은 흔히 성인과 아동의 중간 시기로 여겨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어떻게 개념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적이기까지 하다.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흔히 청소년은 만13세에서 만18세 사이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기에 해당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을 전후하여 18세 이상의 연령범주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후기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후기청소년기는 10대 후반(약18세에 시작)부터 적어도 20대 중반까지로 이어진다고 본다(천정웅, 2013, pp.66-68).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올 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1학년 학생들로 만18세에서 19세의 후기 청소년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청소년'으로 통칭하도록 하겠다.

(3) 참여

김영인(2007)은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참여는 "일반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사회, 직장 등과 같은 공적인 영역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어 참여를 영역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국가 권력을 토대로 하는 국가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련

된 정치참여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는 않으면서도 다수의 삶과 관련된 사회공동체의 기능에 관련된 사회참여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인 정치참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법과 정치'수업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여부가 미치는 영향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의 수업 풍토가 주는 효과를 모두 증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 선택 과목인 '법과 정치'를 수강한 1세대로 이들을 조사한 것은 '법과 정치' 수업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현재 만19세가 되었거나 올 해 안에 만19세가 되는 청소년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만19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참여의도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 층의 정치참여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과 교육과정인 '법과 정치'수업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시민성 함양과 관련하여 청소년 참여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내용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 참여가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거나 사회과 교과로서가 아닌 다른 영역을 통해 청소년 참여를 증진하려는 노력들과 관련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사회과의 '법과 정치'수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공식적 교육과정으로서 사회과교육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본 것은 사회과의 시민성 교육을 검증해본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활동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미래 정치참여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도를 측정하였다. 정치참여의도를 통해 미래의 정치참여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수준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7차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사회 선택과목이었던 '정치'와 '법과 사회'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과 정치'로 통합됨으로써 교과서에 제시되는 정치적 개념과 탐구 자료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과목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법과 정치'과목에서는 정치참여 관련내용이 많이 줄어들어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정치적 지식의 학습이 줄어들었다(이현승, 2014). 이러한 이유로 '법과 정치'수업을 들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정치참여와 관련된 공식적 교육과정의 효과를 검증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법과 정치'수업의 수업 풍토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한 것은 방법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전국의 인문계열 대학 1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이 지역적으로 넓고, 비교적 큰 표본에도 적용이 용이하며 다양한 통계분석이 가능한 설문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수업 풍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교실 현장의 맥락성, 관계성 등의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교사와 학생들과의 인터뷰, 수업 참여 관찰과 같은 질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법과 정치’과목에서 참여의 강조

본 연구는 고등학교 ‘법과 정치’수업이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업은 교육과정이라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진다. 따라서 ‘법과 정치’ 수업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법과 정치’과목의 교육과정이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에서는 교육과정을 협의의 의미로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목표와 내용·방법·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목표·내용·교수-학습 측면에서 ‘법과 정치’과목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목표적 측면에서 참여의 강조

1) 사회과 목표

‘법과 정치’과목은 고등학교 사회 선택 과목으로 ‘법과 정치’과목의 목표는 사회과의 목표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선 사회과의 목표를 먼저 살펴보면,

사회과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자질 또는 시민성(citizenship)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시민이라 할 때에는 민주주의적인 이념과 원리를 신봉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강하다. 따라서 민주시민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이 속

한 공동체의 일을 직접 결정한다(차경수·모경환, 2010,pp.49-50). 이와 같이 사회과교육에서는 '참여'를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과의 목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사회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 시민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정리해보면,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의 목표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법과 정치'과목의 목표

'법과 정치'과목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별개의 과목으로 운영되었던 '정치'와 '법과 사회'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 개의 과목으로 재구성한 것으로(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p.216) 정치현상과 법체계, 국민의 기본적 원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동체 생활의 원리를 파악하며 정치·법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사회교과의 선택과목이다(사회과 교육과정, 2011).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법과 정치'과목의 총괄 목표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의 근본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정치적 쟁점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가지게 한다. 또한 법의 이념과 원리 및 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합리적이고도 정당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의무가 이행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지니게 한다.

총괄 목표를 정리해보면, '법과 정치'과목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기능·태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내용적 측면에서 참여의 강조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009)에서는 '법과 정치'과목의 내용 선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법과 정치'과목은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법 현상과 정치 현상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자유와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정치문제나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정치생활의 경험들을 포함해야한다. 또한 법·정치현상을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도록 구체적인 생활 경험과 현실 사례들을 활용하여 기본개념과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러 정치문제나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정치현상에

관한 학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능동적인 정치행위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 선정의 기준을 정리해보면, '법과 정치'과목은 청소년들이 현대 사회의 정치문제나 쟁점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능동적인 정치행위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하도록 내용을 조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과내용을 선정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생활 경험과 현실 사례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의 여러 정치문제나 쟁점 등을 다룸으로써 실천적인 관심을 유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3)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참여의 강조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법과 정치'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활동'은 중심적인 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2009, p.234).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법과 정치'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과 정치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와 가치 판단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습자의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최대한 많이 도입하여 바람직한 시민 의식과 고차적 사고력이 형성되도록 한다.

나. 법과 정치에 대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탐구 학습, 토론 학습, 의사 결정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논쟁 문제 학습, 모의재판, 역할놀이, 신문 활용 교육(NIE)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다. 실생활과 관련된 풍부한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방송 자료, 신문 자료,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 인터넷 자료 및 영화, 드라마, 시사만화,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시민 생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루어 보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라. 법과 정치 영역의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데 있어 국내와 국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발전적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지도한다.

마. 정치 및 법 관련 기관에 대한 현장 견학 및 사회 참여 학습,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강연, 법률 서식 작성 등의 실생활과 유사한 참여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시민생활에 대해서 친근함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한다.

바. 내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원리적인 부분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량과 난이도를 조절한다.

교수·학습 방법을 정리해보면, '법과 정치'과목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시민의식과 고차적 사고력을 형성하고 발전적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항에서는 '법과 정치'에 대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토론 학습, 논쟁 문제 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논쟁 문제 학습이나 토론학습은 본 연구에서 수업 풍토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과 관련된다.

'다'항과 '라'항에서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루거나 실생활과 유사한 참여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익숙해지고 앞으로의 시민 생활에서 참여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의 정치참여의도

(1) 정치참여

1) 정치 참여의 개념 및 유형

정치참여는 언어적으로 정치와 참여의 합성어이다. 정치(politics)는 '국가(state)의 일'이라는 그리스어 'ta politika'에서 유래하고 있다(Ayto, 1990, p.402). 참여(participation)는 라틴어 'participare'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Scaff(1975)의 참여의 언어적 의미 분석에 따르면, 참여(participation)의 의미는 선거, 캠페인, 시위 등에 참가하는 것(taking part)과 사상, 목표, 정서, 연대 등을 공유하는 것(sharing)으로 나누어진다(김영인, 2002, p.10 ; 2007, p.21). 그러나 정치참여의 개념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이승종·김혜정(2011)은 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하여 참여의 개념을 구분하였는데, 참여의 영역을 시민참여까지 확대하여 최협의, 협의, 광의, 최광의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협의, 협의, 광의의 참여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로 정치참여의 개념과 관련되고 최광의의 참여는 시민참여와 관련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승종·김혜정(2011)의 참여 개념 구분에서 최협의, 협의, 광의로 분류한 참여의 개념을 통해 정치참여의 개념을 알아보았다.

① 최협의의 정치참여

정치참여의 고전인 Verba와 Nie(1972b)는 정치참여를 "정부의 구성원을 선출하거나 정부구성원들이 취하는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거의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일반 시민들에 의한 활동"라고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이들은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제적인 정치

활동만을 참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정부에 대한 지지나 의례적(ceremonial) 참여 활동은 참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정치적 항의와 같은 것은 배제하고 합법적이라고 여겨지는 '체제내에서의(within the system)'의 활동만 포함시켰다.

이들의 정치참여의 개념은 <표-1>과 같은 정치 참여 실태에 대한 그들의 조사 항목에서 구체화된다.

<표-1> Verba & Nie(1972b)의 미국인 참여실태 조사[1)]

- 대통령 선거에서 정규적으로 투표함
- 지방선거에서 항상 투표함
- 지역문제와 관련 있는 최소한 한 개의 조직에서 활동함
-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일한 적이 있음
- 투표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음
- 선거기간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적이 있음
- 특정 이슈나 문제에 관하여 지방공직자를 접촉한 적이 있음
- 최근 3년 안에 정치적 모임이나 집회에 한 번 이상 참석한 적이 있음
- 특정 이슈나 문제에 관하여 주 또는 중앙정부 공무원을 접촉한 적이 있음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이나 조직을 구성한 적이 있음
-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기부한 적이 있음
- 현재 정치적 집단이나 기구의 회원임

1) Verba and Nie.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Verba와 Nie는 크게 선거에서의 투표, 선거운동에의 참여, 정치인이나 공직자와의 접촉, 정치모임이나 조직에의 참여를 정치참여로 보았다.

② 협의의 정치참여

Milbrath와 Goel(1974)은 정부와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을 정치참여로 정의한다. 의식적(ceremonial)이고 지지적인 활동까지 정치참여의 개념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Verba와 Nie의 개념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비합법적인 활동은 정치참여에서의 개념에서 제외시켰다. 투표, 정치단체활동, 선거운동, 정치인 및 공무원에 대한 압력활동, 커뮤니케이션활동을 정치참여의 형태로 주장하였다.

③ 광의의 정치참여

Barnes와 Kasse는 정치적 행위(political a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치적 행위는 “정치체제의 각 계층에 있어서의 선택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이 개념속에는 관습적 참여(conventional participation)활동과 비관습적 참여(unconventional participation)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관습적 참여는 정부의 제도적 경로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비교적 루틴한 참여방법이며, 비관습적 참여는 관습적 참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참여활동이다. 후자는 정부의 공식적 경로에 대하여 도전하거나 대항하는 형태로 참여자나 피참여자 모두에게 비용이 큰 행위이다(이승종·김혜정, 2011, pp.54-55, 104). Parry et al.도 정치참여를 “궁극적으로 의원과 관료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의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지지나 폭력, 항의도 참여의 개념 속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데모, 폭력적 항의와 같은 비관습적인 참여행위도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오늘날의 통설이다(이승종·김혜정, 2011, pp.55-59). 이러한 개념 정의

는 이들이 정치참여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정치참여의 유형에서 구체화된다.

<표-2> Barnes & Kasse(1979)의 정치참여유형분류[2)]

	참여항목
관습적인 참여행위	· 선거에서의 투표 · 신문에서 정치에 관한 기사를 읽음 · 정치에 관한 토론 · 청원 서명 · 지역문제를 위해 일함 · 공직자와의 접촉 ·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권유 · 정치집회에의 참석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비관습적인 참여행위	· 청원 · 합법적 시위 · 보이콧(boycotts) · 임대차 투쟁(rent strikes) · 비공식적 파업 · 건물점거 · 교통방해 · 벽면 구호 · 기물손상 · 개인적 폭력

2) 이승종·김혜정(2011), pp.151-153.

<표-3> Parry, Moyser & Day(1992)의 정치참여유형분류[3)]

참여 항목	
투표	· 지방적 수준의 투표, · 전국적 수준의 투표 · EC문제에 대한 투표
정당 선거운동	· 기금모금 · 선거운동 · 정당선거사무 · 집회참석
집단 활동	· 비공식집단 · 조직화된 집단 · Issue in group
공직자 접촉	· 의회의원 · 시공무원 · 시의원 · 시청 · 언론
항의	· 항의집회참석 · 조직적 청원 · 청원에 서명 · 교통방해 · 항의행진 · 정치적 파업 · 정치적 보이콧 · 물리력 행사

3) 이승종·김혜정(2011), pp.143-144.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치참여

2009 ICCS에서는 학생들이 미래 어른이 되었을 때에 예상되는 시민행동을 정치영역참여에 초점을 두어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는데,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치영역 참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김태준, 2010, pp.117-123; Schulz et al, 2008, pp.25-26).

<표-4> 2009 ICCS의 정치참여유형분류

참여항목	
투표참여	· 지역수준에서의 투표참여 (예: 기초 및 광역의회선거 등) · 국가수준에서의 투표참여 (예: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
정치적인 활동	·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 정치단체 가입 · 노동조합가입 · 지역 및 시 선출직 후보 출마
합법적 항의활동 참여	· 신문사에 편지 보내기 ·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달기 · 선출직 공무원 접촉하기 · 비폭력 집회 참여 · 진정서 서명 모으기 · 상품 불매 운동하기
비합법적 항의활동 참여	· 벽에 항의 표어 스프레이 페인팅하기 · 도로봉쇄하기 · 공공건물 점거하기

2009 ICCS의 정치참여유형은 Verba와 Nie의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Parry, Barnes와 Kasse의 개념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참여를 비관습적인 참여까지 포함하여 유형화했다.

이현승(2014)에 따르면 현행 교과서 역시 비관습적인 정치참여도 정치참여행위로 제시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정치'과목에서는 합법적인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의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법과 정치'과목에서는 청원이나 시위, 항의, 파업, 연좌 농성 등과 같은 정치 참여의 행동이 각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합법이나 불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종·김혜정(2011) 역시 비관습적인 참여행위도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오늘날의 통설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비관습적인 정치참여유형까지 포함한 2009 ICCS연구의 정치참여유형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를 측정하였다.

(2) 정치참여의도

1) 행동 예측 변인으로서의 행동의도

태도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Fishbein과 Ajzen(1975)은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을 통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태도가 아닌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s)에 주목하였다. 행동의도는 행동을 계획하는 과정이며, 행동은 그의 결과를 말한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성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행동의도가 있어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한덕웅 외, 2005; 홍성열, 2004). 따라서 행동에 대한 의도가 높으면 그러한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도 높다.

합리적 행위이론은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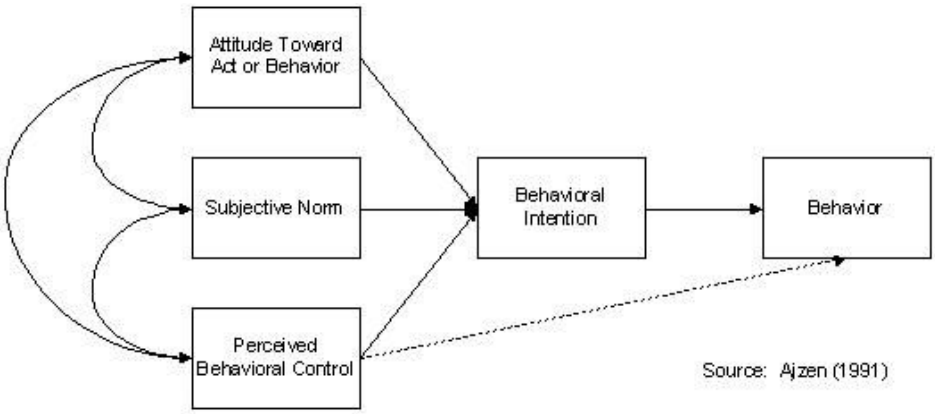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두 가지 요소로 행동의도를 설명한 이론이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어떤 행동에 대해 좋거나 싫다는 평가나 판단을 하는 정도로 개념화된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어떤 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개념화된다. 즉, 참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참여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모유의 수유행동(Manstead et al, 1983), 대학생들의 체력단련, 연애, 학습행위들(Pagel & Davidson, 1984), 체중감소, 소비자선택, 투표행위 및 여성의 직업 선택 등(Ajzen & Fishbein, 1980)의 여러 영역에서 실제 행동들을 예측하는데 잘 적용되었다(한규석, 2009, p.230).

이후 Ajzen(1991)은 합리적 행위이론을 수정하여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주장하였다. 이 이론에서는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두 가지 요소인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에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추가하였다. 즉,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하면 행동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를 통해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지각된 행동 통제는 Bandura가 말하는 자기효능성(self-efficacy)과 유사한 의미로 자신이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 수준을 의미한다. 어떤 행동은 행동의도가 있더라도 실행하기 위한 능력이나 자원(예를 들면, 시간, 돈, 기술,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없다면 실행되기 어렵다. 즉,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동기적 요소뿐 아니라 비동기적인 요소들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게 된다는 것이다(한덕웅 외, 2005, pp.182-184).

행동과 관련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국외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은 지금까지 태도와 행동에 관한 가장 유용한 이론으로 폭넓은 행동들을 타당성 있게 예측해 왔으며, 국내에서도 이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한덕웅과 이민규(2001)는 음주운전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음주운전 행동통제력 지각에 의해서 실제 음주운전 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의 58%를 설명했다. 또한 한덕웅과 한인순(2001)은 과속운전 행동에 이 이론을 적용하여 세 요인들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김지환(1992)의 쓰레기 분리수거 행동 연구에서도 이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한덕웅 외, 2005, pp.181-184).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들을 타당성 있게 예측해왔음을 알 수 있다.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실제 행동을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행동의도를 통해 실제 행동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참여 예측 변인으로서 정치참여의도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s)는 미래의 시민 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기대를 의미하는 점에서, 현재 활발히 정치참여를 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정치참여의도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09 ICCS 연구에는 전세계 38개국, 총 140,0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조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13.5세로 시민으로서의 정치참여는 여러 모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장래 성인이 되었을 때의 활동적인 시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청소년들의 행동의도가 특히 중요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참여의도를 조사하였다(김태준, 2010; Schulz et al, 2008).

본 연구의 조사대상 역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로 현재는 다양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곧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를 조사하였다. 즉, 청소년들이 참여에 대해 좋다는 판단을 하고,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여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개인의 정치참여의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활발한 정치참여로 이어질 거라고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조사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는 추후 우리나라 젊은 층의 정치참여활동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3) 종속변수로서 정치참여의도

여러 학자들이 선정하여 측정한 사회과 수업 풍토연구 종속변수를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표-5> 사회과 수업 풍토연구의 종속변수[4)]

연구자	사회과 수업 풍토연구 종속변수
Ehman(1969)	· 정치 태도 - 냉소주의, 정치적 참여, 시민적 의무감, 효능감
Grossman(1957)	· 정치태도 - 차이에 대한 관용
Long&Long(1975)	· 정치태도 - 효능감, 냉소주의, 시민적 관용, 정치적 과정, 정치적 기능 · 정치참여 - 정치적 관심, 정치에 대한 토론, 미디어에의 노출 등
Ehman (1977, 1980)	· 정치태도 - 정치적 자신감 - 정치적 관심
Zevin(1983)	· 정치태도 - 정치신뢰 - 정치적 효능감
Hahn&Tocci(1990)	· 정치적 태도 - 정치적 관심, 정치신뢰, 정치적 자신감, 정치적 효능감 등

사회과 수업 풍토를 연구한 학자들은 대부분 사회과 수업 풍토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치태도를 종속변수로 연구하였다.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 변수이며 행동을 예측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된다. 그리고 태도와 행동의 연결성을 높인 모형이 계획된 행위 이론이다(한규석, 2009, pp.215-230).

따라서 사회과 수업 풍토가 청소년들의 정치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4) Harwood, 1992, pp.58-63을 재구성

연구결과를 '계획된 행동이론'에 적용해보면, 사회과 수업 풍토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수업 풍토가 청소년들의 정치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과 수업 풍토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3. '법과 정치'수업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1) 수업의 이수여부가 미치는 영향

공식적 교육과정이란 의도되고 계획된 실천으로 학습자들이 뚜렷이 경험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담은 문서,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침, 지역 교육청의 장학 자료, 교과서를 비롯한 수업용 교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교사의 수업 계획, 실시된 수업, 특별활동, 조회 등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면서 교사들이 수업을 표현한 것이 공식적 교육과정의 전형적인 예이다(홍후조, 2003, p.48).

'법과 정치'수업 역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용을 조직하고 있는 공식적 교육과정이다. 그렇다면 공식적 교육과정으로서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했는지의 여부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이 학생들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이 대부분의 학생들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대표적으로, Langton과 Jennings(1968)는 미국 고등학생들의 국가적 표본에서 공민 교육과정(civics curriculum)이 정치적 신념이나 행동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Litt(1963)

역시 시민교육 수업이 정치적 참여와 다양한 수준의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교과과정을 통한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식적 교육과정으로서의 정치수업이 학생들의 정치태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 존재했다. Almond와 Verba(1965)는 자신들이 실시한 국제비교조사(cross-national study)에서 학교에서의 민주적인 교실 풍토(classroom atmosphere)뿐만 아니라 정치수업도 주관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높인다고 보고했다. Struve et al.(1970) 역시 사회과 선택 과목의 수강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학창 시절 교육의 경험이 학생들이 투표의무와 정치참여에 대한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을 강화시켰다고 밝혔다.

오해섭 외(2013)는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수행된 몇 가지 경험연구의 결과들은 시민, 정부, 법 등에 대한 학교수업 이수와 시민적 지식, 자신감 및 태도 등의 함양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주었다고 보고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Gimpel 등(2003)은 1999-2000년 동안 미국의 Maryland에서 수행된 Metro Civic Values Survey결과를 사용하여, 시민교육과 관련된 사회과 과목을 이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논의 습관을 5%, 정치적 지식을 3%, 자신의 정치적 기술에 대한 개인적 자신감을 말하는 '내적 효율성(internal efficacy)를 2% 향상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 Campbell(2005)은 CIRCLE의 측정된 인용, 가족소득 지역, 이데올로기 등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수업이수와 행동 간에는 매우 높은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 Levine(2007)은 미국 California 학생들에 대한 대규모 조사의 결과를 통해 교과과목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지식과 정치와 시민사회에 대한 참여에 대한 약속 등에 있어 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Ehman(1980a) 역시 보통의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나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지만 교과서, 프로그램, 교수적 실천을 포함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적인 처치는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교육의 양만 가지고는 학생들의 정치적 태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특별한 교육과정적인 처치는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수업을 들었는지의 여부가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법과 정치'수업이 공식적 교육과정으로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업 풍토가 미치는 영향

1) 수업 풍토의 개념

선행연구를 통해 수업 풍토(class climate)는 학생이 자신의 교실 수업의 경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회적·교육적·심리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이은경, 2008; 김필윤, 2012).

사회과에서 수업 풍토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알린 것은 Ehman(1969, 1970, 1972)의 연구이다. Ehman의 사회과 수업 풍토의 개념화는 한동안 사회과 학자들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Ehman(1980a)은 수업 풍토란 '교사의 행위와 교실의 교육과정적(classroom curriculum)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가 가르치나, 무엇이 가르쳐지는가와 관련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지는가와 관련된다. 이후 사회과교육자들은 오랫동안 민주시민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업 풍토를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왔다(Harwood, 1992, pp.48-57).

사회과교육학자들은 수업 풍토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정치태도나 정치적 참여 등을 측정하였다. 즉 사회과의 수업 풍토가 학생들의 긍정적

인 정치태도나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따라서 사회과가 목표로 하는 수업 풍토 연구는 민주적인 수업 풍토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 수업 풍토의 구성

사회과 수업 풍토를 연구한 여러 학자들이 선정한 사회과 수업 풍토의 구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 사회과 수업 풍토의 구성[5)]

연구자	사회과 수업 풍토의 구성
Ehman (1969)	· 논쟁문제토론 횟수 · 논쟁문제토론 시 교사의 객관적인 태도 · 토론 참여에 있어서 교사의 중립적인 태도 · 논쟁문제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자유롭다고 느끼는 정도 · 교사가 인종갈등이나 인종통합 이슈를 다루는 횟수
Grossman (1957)	· 논쟁문제토론을 하는 시간 ·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갈등 · 교실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학생의 의지 · 논쟁문제와 관련된 과목의 이수 횟수 · 사회과 과목의 이수 횟수
Long & Long (1975)	· 논쟁문제토론 횟수 · 논쟁문제토론을 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
Ehman (1977, 1980)	· 논쟁문제토론 횟수 · 교사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정도 · 논쟁문제토론 시 학생들의 의견 표현의 개방성

5) Harwood, 1992, pp.58-63을 재구성

Zevin (1983)	· Flander의 언어상호작용분석법(Flander's Interaction Analysis System)으로 측정한 학생참여수준 - 학생/교사 발언 비율 - 학생주도의 발언/교사 주도의 발언 비율
Hahn & Tocci (1990)	· 논쟁문제토론 횟수 · 교사가 학생이 의견표현을 하도록 격려 · 교사가 학생이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도록 격려 · 교사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학생의 자유 · 교사가 학생들이 교실에서 솔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함

사회과 수업 풍토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학자들은 논쟁문제토론 횟수, 토론할 때의 교사가 다양한 관점을 이끌어내는 정도, 토론할 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Ehman(1969, 1980b)이 구성한 사회과 수업 풍토의 요소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hman의 사회과 수업 풍토 구성요소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Ehman(1980b)에서는 Ehman(1969)과 다른 구성요소로 개방적 수업 풍토를 측정했다. Ehman(1969)은 교사가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는지의 정도를 수업 풍토의 구성요소로 두었다. 하지만 논쟁문제토론을 할 때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른데, 대표적 학자인 Kelly는 다양한 시각의 논쟁문제를 학습하되 교사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방향에서 지도하는 신념을 가진 공정성형이 가장 바람직한 교사 유형이라고 보았다(차경수·모경환, 2010, pp.346-348).

Ehman(1969)이 개방적 수업 풍토를 측정하는 항목에 교사의 중립적인 태도와 인종문제를 다루는 정도를 포함한 반면, Ehman(1980b)은 이 두

가지 항목을 제외시켰다. 즉, 개방적 수업 풍토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논쟁문제가 다뤄지는 정도, 교사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정도, 논쟁문제 토론 시 학생들의 의견 표현의 개방성만을 사용했다. 이로써 논쟁문제토론에서의 교사의 중립적 태도라는 논란과 인종문제를 다루는 정도라는 특수한 국가적 상황이 수업 풍토의 구성요소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정치'의 수업 풍토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수업 풍토의 구성요소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론을 수정한 Ehman(1980b)의 수업 풍토 구성요소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논쟁문제토론 횟수

논쟁문제란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그 결정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수에게 관련되어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개의 선택 가능한 대안 중 어느 한 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차경수·모경환, 2010, p.340).

논쟁문제토론과 관련해서는 논쟁문제토론에 참여하는 경험이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이 있다(Parker, 2008, 2010; Bickmore, 2008; Hess, 2002). 공공문제와 관련된 논쟁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서로에게 직접 이야기해보는 과정은 청소년들을 참여에 익숙하게 만들고 공공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추후 청소년들의 참여적 시민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Parker(2008)는 토론의 한 유형인 '숙의'(deliberation)가 청소년들이 앞으로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숙의'(deliberation)를 통해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현재 당면한 문제들, 비교되는 대안들, 토론자들의 관점 등을 배울 수 있다. 이후 Parker(2010)는 Molly Andolina 등의 연구를 제시하며 학교에서의 토론 참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청소년들의 시민 행동(civic behavio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수업에서 이슈를 토론한 경험이 있는 18~24

세 청소년들은 청원서에 서명하기, 보이콧에 참여하기, 정치 뉴스 시청 등과 같은 시민 행동에 더 적극적이었다.

Bickmore(2008) 역시 청소년들이 참여와 관련된 시민적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과에서 사회적 문제와 논쟁적인 공공적 이슈를 가지고 '숙의'(deliberation)를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논쟁문제 토론을 해보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하는 수업이 된다는 것이다.

② 교사의 행동

교사가 논쟁문제토론을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논쟁문제토론을 이끌어 가는지도 중요하다. 많은 토론에서 학생들 대부분은 침묵하고 소수 학생들이 발언을 독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참여해야 토론이 보다 성공적일 수 있다(Hess, 2004).

교사가 논쟁문제토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 하나의 의견이 지배적이거나 소수 학생들이 발언을 독점하게 해서는 안된다. 교사는 토론의 촉진자로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수업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사 자신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드러낼 수 있게 유도해줄 수 있어야 한다.

③ 학생들의 의견표현의 개방성

Ehman(1980b)은 학생들의 의견표현의 개방성을 측정하는 항목에서 논쟁문제토론을 할 때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를 조사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2009 ICCS의 연구도 학급토론의 개방성 지수를 측정하면서 수업시간에 정치·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토론할 수 있도록 교사가 허락하거나 격려하는지를 조사하였다. 2009 ICCS의 연구결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지수 평균이 높을수록 미래투표의도점수는 높게 나왔다(김태준, 2010, pp.214-219). 즉,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의 분위기가 학생들의 투표참여의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Ehman(1980b)은 사회과 수업 풍토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논쟁문제가 다뤄지는 정도, 교사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정도, 논쟁문제 토론 시 학생들의 의견 표현의 개방성을 측정하였다. 교사가 논쟁문제토론을 많이 하고, 논쟁문제 토론 시 학생들에게 논쟁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할수록,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할수록 개방적인 수업 풍토(Open Climate)이고 그렇지 않을수록 폐쇄적 수업 풍토(Closed Climate)이다. Ehman(1969)에 의하면 수업 풍토가 개방적일수록 학생들은 낮은 냉소감, 높은 정치참여, 높은 시민적 의무감, 높은 정치적 효능감을 보였다.

Ⅲ. 연구설계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법과 정치’수업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했는지의 여부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지각한 수업 풍토가 정치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법과 정치’수업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때 사회 선택 과목을 이수하고 올 해인 2014년 2월에 졸업한 인문계열 대학 1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만19세부터 24세까지가 후기 청소년으로 분류되므로 구체적으로 이들은 후기 청소년에 해당한다. 연구대상을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정치’과목은 학교에 따라 고등학교 인문계열 2학년 혹은 3학년에 편성되어있다. 따라서 인문계열 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둘째, ‘법과 정치’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2년부터 고등

학교에서 시행되었다. 2014년 2월 졸업자들이 '법과 정치'과목을 처음으로 이수한 학생들이다. 따라서 대학 1학년 학생중에서도 2014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만 연구 대상이 되었다.

설문조사는 2014년 5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인문계열 대학 1학년 학생 55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설문을 실시하였다. 인터넷 설문은 설문 안내문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뒤 설문에 동의할 경우 설문지를 클릭해서 바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넷 설문은 현재 응답하고 있는 항목을 작성해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게 구성이 되었다. 따라서 모든 항목에 응답을 해야 설문이 완료되기 때문에 부실한 응답은 발생하지 않았다.

설문을 하기 전 사전질문을 통해 본 연구의 설문대상으로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2014년 2월 졸업자, 인문계열 졸업자, 대학 1학년생인지를 확인하였고, 조건에 해당하면 본격적인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은 <표-7>과 같다.

<표-7> 연구대상 인원 구성(성별)

(단위 : 명)

성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 남자	136	24.3	24.3
2) 여자	423	75.7	100.0
합계	559	100.0	

<표-8>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빈도 분포

통제변인	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평균사탐 성적	1-2등급	212	37.9
	3등급	215	38.5
	4-5등급	110	19.7
	6-7등급	20	3.6
	8-9등급	2	0.3
	합계	559	100.0
경제적 수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다	7	1.3
	경제적으로 꽤 풍요롭다	49	8.8
	그냥 살만하다	374	66.9
	생활하기 꽤 어렵다	121	21.6
	생활하기가 아주 어렵다	8	1.4
	합계	559	100.0

<표-9> '법과 정치'수업 이수자 비율

	빈도(명)	퍼센트
1) 이수	263	47.0
2) 비이수	296	53.0
합 계	559	100.0

인문계열의 특성상 여학생의 비율이 컸다. 특히,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는 여학생들의 참여가 높았다. 결과, 응답자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과 남학생의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학생은 263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47.0%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때 사회 선택 과목의 평균 선택률은 45.9%이다. 이를 고려해볼 때 '법과 정치'과목의 선택률은 평균 선택률보다 약간 높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변인

(1) 독립 변인

본 연구는 '법과 정치'수업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여부와 '법과 정치'수업에서의 수업 풍토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은 '법과 정치' 수업의 이수 여부와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이 지각한 수업 풍토이다. 논쟁문제토론 수업 풍토를 측정하기 위해서 Ehman(1980b)이 사용한 논쟁문제가 다뤄지는 정도, 교사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정도, 논쟁문제 토론 시 학생들의 의견 표현의 개방성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후 평균하여 수업 풍토 점수를 산출하였다. 문항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 종속 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정치참여의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참여를 관습적인 참여와 비관습적인 참여까지 포함하여 유형화한 정치참여의도 수준을 측정하였다.

2009 ICCS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미래 어른이 되었을 때에 예상되는 시민행동을 정치영역참여에 초점을 두어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Barnes와 Kasse의 정치참여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래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 ICCS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문항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에서 정치참여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4점 척도를 사용하면 "보통이다"라는 답변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응답자들이 정치참여의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대답하게 된다. 그런데 설문문항에서는 문항번호가 커질수로 정치참여의도가 낮게 되어있어,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역코딩(recoding) 작업을 거쳤다.[6] 총 16문항을 측정하였는데 응답자의 점수를 모두 합한 후 평균하여 응답자의 정치참여의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3) 통제 변인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독립변인 외에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인으로 성별, 평균사회성적, 경제적 수준, 정치사회화 경험을 측정하였다.

첫 번째 통제변인은 성별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성별이 정치태도와 참여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나타났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정치효능감이 더 높고 전반적인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을 통제 변수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통제변인은 평균 사회 성적이다. 학생들의 평균 사회 성적은 정치적 지식과 관련된 변수로 정치참여를 예언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시민지식이 미래의 선거참여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Torney-Purta et al., 2001), 2009 ICCS의 연구에서는 미래 선거

6) 즉, '확실히 참여함'은 4점,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은 1점으로 역코딩하였다.

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학생들의 시민지식 점수가 더 높았다.

세 번째 통제변인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다. 학력, 소득, 직업은 표준사회경제적 지위(Standard SES)를 결정하는 중요한 표준지표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상위직업이며 어느 정도의 학력을 보유할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종·김혜정, 2011, pp.137-139).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님의 학력 수준, 직업 등을 알아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 수준에 대한 주관적 계층 인식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았다.

네 번째 통제변인은 정치사회화 경험이다. 정치사회화란 개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 정치적 정향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다. 정치적 지식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당히 많고 복합적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치사회화의 매개체에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교회, 사회계급, 인종집단, 작업·생활환경, 대중매체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가정과 학교는 전통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정치사회화의 매개체로서 주목을 받아왔고, 1970년대 이후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TV등이 정치사회화의 주요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다. 동료집단은 비교적 밀접한 유대를 가진 구성원들로 형성된 1차집단의 한 형태이므로 청소년들에게는 또래집단 혹은 친구로 볼 수 있는데, 청소년 후기에는 특히 친구가 정치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광웅·방은령, 2001, pp.32-37).

본 연구에서는 정치 사회화와 관련된 이러한 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치사회화 경험을 통제변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사회화의 경험을 하게 된 배경이 된 내용으로 가정에서의 경험 2항목, 학교에서의 경험 2항목, 대중매체를 통한 경험 2항목, 또래와의 정치적 대화 1항목 총 7가지 항목을 측정하였다. 평균 사회 성적은 고등학교 때 받았던 평균 사회 탐구 성적으로 측정하였다. 평균 사회 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문항번호가 커질수록 부정적으로 되어있어, 역코딩작업을 거쳤다.[7)]

7) 평균 사회탐구 성적은 '8-9등급'은 1점, '6-7등급'은 2점, '4-5등급'은 3점, '3등급'은 4점, '1-2등급'은 5점으로 역코딩하였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생활하기가

4. 조사도구

본 연구의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 인터넷 설문(Internet survey)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개발된 설문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단시간 내에 많은 응답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자료수집방법이다(신민철, 2007, p.180). 인터넷 설문조사 방법은 크게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방식과 웹(www)을 이용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민철, 2007; 성태제·시기자, 2006). 전자우편방식(e-mail survey)은 전자파일로 작성된 설문지를 설문대상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설문대상자들은 이 파일에 응답함으로써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이고, 웹기반방식(web-based survey)은 설문 대상자들이 웹상에 게시된 설문문항을 읽고 응답하는 방식이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 설문조사방법은 대체로 전자우편방식에서 웹 기반방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전자우편방법과 웹기반방법이 서로 연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웹기반방법의 경우 이메일에 설문 안내문과 함께 설문이 탑재된 사이트로 하이퍼링크 정보를 한다거나 이메일 본문에 직접 HTML방식의 설문지를 포함하여 응답자가 설문에 클릭하면 설문내용이 조사자의 설문서버에 저장되는 방법 등으로 전자우편방식과 웹기반방식이 혼용되고 있다(최영훈, 2008, pp.425-426).

인터넷 설문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응답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자료의 수집과 자료 입력 등의 과정이 통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실시간 분석과 연속적인 조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확보된 e-mail list 상의 응답자나 자사 혹은 전문조사기업의 site에 접속한 응답

아주 어렵다'는 1점,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다'는 5점으로 역코딩하였다.

자 외에는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을 한 표집집단이 조사연구대상 모집단을 대표하는지, 또 응답자가 중복해서 응답했는지 여부 등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신민철, 2007, pp.180-18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는 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질 높은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점점 사용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최영훈 외, 2008, p.428).

점차 전통적 조사방법에서 인터넷 조사 방법으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 설문조사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인문계열 대학 1학년 학생들이다. 조사대상의 지역적 범위가 넓고, 조사대상의 연령이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젊은 층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인터넷 설문조사가 유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전자우편방법과 웹기반 방법이 서로 연계된 인터넷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설문 안내문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뒤 설문에 동의할 경우 HTML 방식의 설문지를 통해 바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설문내용은 독립변인인 고등학교 때 수강했던 사회 선택 과목을 묻는 내용과 '법과 정치'수업의 수업 풍토를 묻는 내용, 종속변인인 정치참여의도를 묻는 내용, 통제변인인 정치사회화 경험과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묻는 내용으로 구분된다.

독립변인인 수업 풍토의 문항간 신뢰도는 Cronbach α= .842이었다. 종속변인인 정치참여의도의 Cronbach α= .861이다. 종속변인의 Cronbach α 값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표참여의도 .709, 투표 외 정치활동 참여의도 .860, 합법적 항의활동 참여의도 .841, 비합법적 항의활동 참여의도 .880이다. 각 변인의 문항간 신뢰도는 모두 .8이상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았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 여부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가 유의미한 차이(연구문제1)를 보이는지와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이 지각한 수업 풍토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연구문제2)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여부에 따른 항목별 정치참여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변인별 수준

(1) 독립변인-개방적 수업 풍토 수준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법과 정치'수업의 개방적 수업 풍토 점수는 <표-10>과 같다.

<표-10> 개방적 수업 풍토 기술통계

(N=263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개방적인 수업 풍토		1.00	5.00	2.9952	.86560
논쟁문제가 다뤄지는 정도		1.00	5.00	2.7871	1.09139
교사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정도	사회 교사의 다양한 관점 제시	1.00	5.00	3.2928	.99321
	사회 교사가 학생의 다양한 관점 표출 유도	1.00	5.00	2.8517	1.02863
논쟁문제 토론시 학생들의 의견 표현의 개방성		1.00	5.00	3.0494	1.12629

Likert식 5점 척도로 '보통이다'가 3점임을 감안해 볼 때, 개방적인 수업 풍토의 평균 점수는(2.9952)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법과 정치'수업 풍토의 개방성은 보통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방적인 수업 풍토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 교사의 다양한 관점 제시(3.2928)와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3.0494)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 교사가 편향된 관점에서 정치적·경제적 이슈를 설명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논쟁문제 토론 횟수(2.7871)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수업으로 현실상 논쟁문제 토론을 자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 표출을 유도(2.8517)한다는 항목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 교사의 다양한 관점 제시(3.2928)와 비교해 보면, 교사가 자신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나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끌어내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통제변인- 정치사회화 수준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청소년들의 정치사회화 점수는 <표-11>과 같다.

<표-11> 정치사회화 기술통계

(단위: 명, %)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정치사회화	559명			3.1278		.65624	
하위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가정에서의 정치적 대화 빈도	61 (10.9)	158 (28.3)	213 (38.1)	104 (18.6)	23 (4.1)	2.7674	1.00871
가정의 민주적 분위기	13 (2.3)	46 (8.2)	173 (30.9)	256 (45.8)	71 (12.7)	3.5832	.89591
학교 내 정치 참여활동	35 (6.3)	92 (16.5)	189 (33.8)	180 (32.2)	63 (11.3)	3.2576	1.05995
학교의 민주적 분위기	21 (3.8)	81 (14.5)	215 (38.5)	198 (35.4)	44 (7.9)	3.2916	.93849
TV를 통한 시사문제 접촉빈도	22 (3.9)	111 (19.9)	226 (40.4)	163 (29.2)	37 (6.6)	3.1467	.94468
인터넷을 통한 시사문제 접촉빈도	34 (6.1)	119 (21.3)	213 (38.1)	148 (26.5)	45 (8.1)	3.0912	1.01807
또래와의 정치적 대화	67 (12.0)	150 (26.8)	219 (39.2)	98 (17.5)	25 (4.5)	2.7567	1.02208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했는데, 정치사회화 평균 점수는 3.12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정치사회화 경험 2항목 중 가정의 민주적 분위기는 3.5832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가정에서의 정치적 대화 빈도는 2.7674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에서의 정치사회화 경험 2항목은 모두 3.2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중매체를 통한 정치사회화 경험 2항목인 TV를 통한 정치사회화 경험, 인터넷을 통한 정치사회화 경험도 각각 3.1467, 3.0912의 점수를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또래와의 정치적 대화는 2.7567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3) 종속변인- 정치참여의도 수준

<표-12> 정치참여의도 기술통계

(N=559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치참여의도	1.06	3.69	2.1155	.41598
지역수준에서의 투표참여	1.00	4.00	3.2826	.72752
국가수준에서의 투표참여	1.00	4.00	3.6887	.63899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	1.00	4.00	2.9642	.72251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1.00	4.00	1.6780	.67739
정치단체 가입	1.00	4.00	1.5027	.69528
노동조합 가입	1.00	4.00	1.7567	.79075
지역 및 시 선출직 후보 출마	1.00	4.00	1.4114	.67118
신문사에 편지 보내기	1.00	4.00	1.9911	.70705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달기	1.00	4.00	2.1950	.83574
선출직공무원(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접촉하기	1.00	4.00	1.7227	.70840
비폭력 집회 참여	1.00	4.00	2.1717	.89954
진정서 서명 모으기	1.00	4.00	2.4794	.86914
상품 불매 운동하기	1.00	4.00	2.5689	.88100
벽에 항의 표어 스프레이 페인팅하기	1.00	4.00	1.5742	.62886
도로봉쇄하기	1.00	4.00	1.4401	.57070
공공건물 점거하기	1.00	4.00	1.4204	.56829

정치참여의도의 평균점수는 2.1155로 최대값이 3.69임을 감안할 때 약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1점,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2점, 아마도 참여함=3점, 확실히 참여함=4점임을 고려해 보면, 정치참여의도의 평균 점수는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보다 약간 적극적인 참여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참여의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투표참여의도에 해당하는 지역수준에서의 투표참여(3.2826), 국가수준에서의 투표참여(3.6887),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2.9642)의 참여의도는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투표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극적인 정치참여방법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참여에 대해 참여의도가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정치단체 가입(1.5027)이나 노동조합 가입(1.7567)의 참여의도는 낮은 편이다. 시민과 정치를 연결시켜주는 중개기관으로 정당, 이익집단, 노조 등이 전통적인 기관들보다는 NGO나 NGN등이 새롭게 부상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주성수, 2003),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정치단체가입이나 노동조합 참여의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신문사에 편지보내기(1.9911),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달기(2.1950), 비폭력 집회 참여(2.1717), 진정서 서명 모으기(2.4794), 상품 불매 운동하기(2.5689)도 다소 높은 참여의도를 보였다. 이는 젊은 층들은 정부의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서명 운동 등 저항활동에 비교적 적극적이라는 이승종·김혜정(2011)의 참여실태 분석과도 일치한다.

2. '법과 정치'수업 이수에 따른 정치참여의도 수준

'법과 정치'수업 이수 여부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가 유의미한 차이(연구문제1)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괄투입법(ENTER)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여부가 통제변인과 함께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

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독립변인과 통제변인 가운데 범주형 변인인 '법과 정치'수업 이수와 성별은 더미변인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i = a + b_1 X_1 + b_2 X_2 + b_3 X_3 + b_4 X_4 + b_5 X_5 + b_6 X_6 + e$$

Y_i : 정치참여의도
a : 상수
X_1 : '법과 정치'수업 이수 여부(비이수=0, 이수=1)
X_2 : 정치사회화 경험
X_3 : 성별(여자=0, 남자=1)
X_4 : 평균 사회 성적
X_5 : 주관적 계층 인식
e : 오차항

(1) 독립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는 <표-13>과 같다.

<표-13> 연구문제 1의 독립 변인간 상관관계

(괄호 안은 p값)

	'법과 정치' 수업 이수여부	성별	평균 사회 성적	경제적 수준	정치사회화경험
'법과 정치' 수업 이수여부	1	-.058	-.018	-.024	.029
성별	(.168)	1	-.018	-.033	-.119**
평균 사회 성적	(.669)	(.679)	1	.034	.215**
경제적 수준	(.573)	(.434)	(.416)	1	.108*
정치사회화경험	(.487)	(.005)	(.000)	(.010)	1

(*: p<.05, **: p<.01, ***:p<.001)

정치사회화경험은 다른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성별과의 상관관계(.119)는 음(-)의 상관관계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치사회화경험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평균 사회 성적과의 상관관계(.215)는 다른 변인과의 상관관계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사회화의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사회성적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수준과의 상관관계(.108)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사회화의 경험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독립변인들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들이 있으나, 상관계수가 .3미만으로 독립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각 독립변인들은 상호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속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여부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14>와 같다.

<표-14> ‘법과 정치’수업 이수와 정치참여의도 회귀분석모델

	회귀계수(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1.529	.126		12.176	.000	
‘법과 정치’수업 이수 여부	.078	.033	.094	2.351	.019*	1.005
성별	.005	.039	.006	.137	.891	1.018
평균 사회 성적	.040	.020	.084	2.045	.041*	1.049
경제적수준	-.070	.027	-.105	-2.617	.009**	1.013
정치사회화경험	.186	.026	.294	7.095	.000***	1.075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343	.118	.110	.39244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1.388	5	2.278	14.789	.000***
잔차	85.167	553	.154		
합계	96.555	558			

(*: p<.05, **: p<.01, ***: p<.001)

우선 다중공선성 진단 통계량인 분산팽창인자(VIF)를 살펴본 결과, VIF지수가 1.005~1.075로 모두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면 이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수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를 11.8%(R^2=.118)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 모형의 적합도는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

회귀분석의 결과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독립변인은 ‘법과 정치’수업 이수(p=.019<.05), 평균사회성적(p=.041<.05),

경제적 수준(p=.009<.05), 정치사회화경험(p=.000<.00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변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표준화 회귀계수(B)를 살펴보면, '법과 정치'수업 이수, 평균 사회 성적, 정치사회화경험의 부호는 양수(+)이고, 경제적 수준의 부호는 음수(-)이다. 이를 통해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할수록, 평균 사회 성적이 높을수록, 정치사회화 경험이 많을수록 정치참여의도가 높지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낮을수록 정치참여의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변수에 해당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참여 유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참여유형별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이승종·김혜정, 2011, p139).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정치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회귀계수(베타) 값을 살펴보면, 정치사회화 경험=.294, 경제적 수준=-.105, '법과 정치'수업 이수 여부=.094, 평균사회성적=.084이다. 부호에 상관없이 표준화 회귀계수(베타)의 절대값이 큰 변수가 그렇지 않은 변수보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크게 주므로 정치사회화 경험, 경제적 수준, '법과 정치'수업 이수 여부, 평균사회성적 순으로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준다.

3. '법과 정치'수업 이수에 따른 항목별 정치참여의도 수준

이상을 통해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여부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정치참여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15>와 같다.

<표-15> '법과 정치'수업 이수 여부에 따른 항목별 정치참여의도 차이

(이수=263명, 비이수=296명)

	'법과 정치' 이수여부	평균	표준편차	t	유의도
정치참여의도	**1)이수**	**2.1611**	**.41433**	**2.455**	**.014***
	2)비이수	**2.0750**	**.41393**		
① 지역수준에서의 투표참여 (예: 기초 및 광역의회선거 등)	1) 이수	3.3080	.70994	.776	.438
	2) 비이수	3.2601	.74326		
② 국가수준에서의 투표참여 (예: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1) 이수	3.6540	.65240	-1.212	.226
	2) 비이수	3.7196	.62633		
③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	1) 이수	2.9506	.70537	-.421	.674
	2) 비이수	2.9764	.73838		
④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1) 이수	1.7338	.66358	1.841	.066
	2) 비이수	1.6284	.68673		
⑤ 정치단체 가입	1) 이수	1.5589	.71205	1.807	.071
	2) 비이수	1.4527	.67733		
⑥ 노동조합 가입	1) 이수	1.8213	.81165	1.824	.069
	2) 비이수	1.6993	.76853		
⑦ 지역 및 시 선출직 후보 출마	1) 이수	1.4525	.70211	1.356	.176
	2) 비이수	1.3750	.64144		
⑧ 신문사에 편지 보내기	1) 이수	2.0456	.71902	1.723	.085
	2) 비이수	1.9426	.69386		
⑨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달기	1) 이수	2.2700	.83765	2.005	.045*
	2) 비이수	2.1284	.82979		
⑩ 선출직 공무원 접촉하기	1) 이수	1.7681	.72799	1.428	.154
	2) 비이수	1.6824	.68926		

⑪ 비폭력 집회 참여	1) 이수	2.2167	.89666	1.115	.265
	2) 비이수	2.1318	.90171		
⑫ 진정서 서명 모으기	1) 이수	2.5361	.88111	1.455	.146
	2) 비이수	2.4291	.85670		
⑬ 상품 불매운동하기	1) 이수	2.6540	.87700	2.160	.031*
	2) 비이수	2.4932	.87911		
⑭ 벽에 항의 표어 스프레이 페인팅하기	1) 이수	1.6198	.62997	1.616	.107
	2) 비이수	1.5338	.62616		
⑮ 도로봉쇄하기	1) 이수	1.5019	.58528	2.417	.016*
	2) 비이수	1.3851	.55263		
⑯ 공공건물 점거하기	1) 이수	1.4867	.56522	2.614	.009**
	2) 비이수	1.3615	.56545		

(*: p<.05, **: p<.01, ***:p<.001)

‘법과 정치’수업 이수에 따른 정치참여의도를 분석 할 결과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청소년의 정치참여의도 점수가 이수하지 않은 청소년의 정치참여의도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치참여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16개의 항목 중 국가수준에서의 투표참여와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수집 2개의 항목을 제외한 14개의 항목에서 ‘법과 정치’를 이수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 점수가 이수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달기, 상품 불매운동하기, 도로봉쇄하기, 공공건물 점거하기 4개의 항목만 유의수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4개의 항목은 항의활동에 포함되는 정치참여유형으로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달기와 상품 불매운동하기는 합법적 항의활동이고 도로봉쇄하기와 공공건

물 점거하기는 비합법적 항의활동이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정치단체 가입, 노동조합 가입은 0.5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각각 .066, .071, .069의 유의확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 여부에 따라 위의 세 항목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치단체나 노동조합은 시민과 정치를 연결시켜주는 전통적인 중개기관이다. NGO나 NGN등이 새롭게 부상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여부가 전통적인 중개기관에 대한 정치참여의도에 상당한 수준의 차이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투표와 관련된 3개의 하위 항목인 지역수준에서의 투표 참여, 국가수준에서의 투표 참여,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투표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극적인 정치참여방법으로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참여의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국가수준에서의 투표참여와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은 '법과 정치'를 이수하지 않은 청소년의 점수가 이수한 청소년의 점수보다 약간 높았다. 다른 다양한 정치참여활동에 더 소극적인 '법과 정치' 비이수 청소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활동에 더 적극적인 참여의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4. '법과 정치'수업의 수업 풍토에 따른 정치참여의도 수준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지각한 수업 풍토가 정치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 일괄투입법(ENTER)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i = a + b_1 X_1 + b_2 X_2 + b_3 X_3 + b_4 X_4 + b_5 X_5 + b_6 X_6 + e$$

Y_i : 정치참여의도

a : 상수

X_1 : 법과 정치 수업의 수업 풍토에 대한 학생인지

X_2 : 정치사회화 경험

X_3 : 성별 (여자=0, 남자=1)

X_4 : 평균 사회 성적

X_5 : 주관적 계층 인식

e : 오차항

1) 독립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는 <표-16>과 같다.

<표-16> 연구문제 2의 독립 변인간 상관관계

(괄호 안은 p값)

	개방적 수업 풍토	성별	평균 사회 성적	경제적 수준	정치사회화 경험
개방적 수업 풍토	1	.011	.011	-.011	.164**
성별	(.860)	1	-.018	-.033	-.119**
평균 사회 성적	(.858)	(.679)	1	.034	.215**
경제적 수준	(.864)	(.434)	(.416)	1	.108*
정치사회화 경험	(.008)	(.005)	(.000)	(.010)	1

(*: p<.05, **: p<.01)

독립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들이 있으나, 상관계수가 .3미만으로 독립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각 독립변인들은 상호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속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법과 정치'수업의 수업 풍토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17>과 같다.

<표-17> '법과 정치'수업의 수업 풍토와 정치참여의도 회귀분석 모델

	회귀계수(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1.788	.195		9.153	.000	
수업 풍토점수	-.041	.029	-.086	-1.406	.161	1.032
성별	-.024	.060	-.024	-.405	.686	1.010
평균 사회 성적	.051	.032	.103	1.605	.110	1.138
경제적수준	-.050	.042	-.073	-1.199	.232	1.021
정치사회화 점수	.139	.041	.221	3.373	.001**	1.194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278	.077	.059	.40182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3.481	5	.696	4.312	.001**
잔차	41.496	257	.161		
합계	44.977	262			

(*: p<.05, **: p<.01, ***: p<.001)

우선 다중공선성 진단 통계량인 분산팽창인자(VIF)를 살펴본 결과, VIF지수가 1.010~1.194로 모두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면 이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수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를 7.7%(R^2= .77)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모형의 적합도는 .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1).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회귀모델의 경우 정치사회화 경험(p<.05)외 나머지 요인들인 수업 풍토 점수, 성별, 평균 사회 성적, 경제적 수준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이 지각한 수업 풍토가 학생들의 정치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개방적인 사회과 수업 풍토가 청소년들의 정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Ehman, 1969, 1980a, 1980b; 김필윤, 2012)는 연구나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이 미래 투표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2009 ICCS의 연구와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Ⅴ.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의 ‘법과 정치’수업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공식적 교육과정으로서의 사회과교육이 청소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여부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지각한 수업 풍토가 정치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를 위해 2014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국의 인문계열 대학 1학년 학생 55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만18세부터 만19세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19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들은 앞으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실제 정치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여부와 ‘법과 정치’수업의 개방적 수업 풍토점수를 독립 변인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 ‘법과 정치’수업의 이수는 $p<.05$수준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치참여의 항목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가장 기본적인 정치참여의 방법인 투표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달기, 상품 불매운동하기, 도로봉쇄하기, 공공건물 점거하기와 같은 합법적·비합법적 항의활동 항목에서는 '법과 정치'를 이수한 청소년들의 점수가 더 높았다. 항의활동 정치참여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과 정치'를 이수한 청소년들이 이수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적극적인 정치참여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더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의 분석 결과, '법과 정치'수업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지각한 수업 풍토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개방적인 사회과 수업 풍토가 청소년들의 정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의 연구나(Ehman, 1969, 1980b; 김필윤, 201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이 미래 투표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2009 ICCS의 연구와 상반된다. 이는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수업 풍토 측정 항목은 논쟁문제 토론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입시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논쟁문제토론 자체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과 정치'수업의 수업 풍토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반된 결과를 보인 국내의 연구인 김필윤(2012)의 연구는 고등학교 사회수업의 민주적인 수업 풍토를 측정하는 항목에 논쟁문제토론과 관련된 항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수업분위기나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 등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수업 풍토가 주는 효과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2009 ICCS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이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보다 토론수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토론수업의 개방성이 주는 효과가 드러났을 것으로 보인다.

2.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공식적 교육과정으로서 사회과교육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자질 함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시민교육으로서 사회과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우리나라 시민들의 자질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과가 입시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풍토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과 본연의 목표는 내용 지식 하나를 더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풍토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수업 풍토가 학교현장에서 하루 빨리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이외에 가정, 대중매체, 또래집단, 수업 외 학교환경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의 정치사회화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회과 수업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교칙 제정이나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중고등학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교실 안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생생한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한영(2004). “촛불시위 참여가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효능감, 참여의무감, 관심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명정(2009). “청소년 참여가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영인(2002). “정치참여의 시민교육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_____(2007). 『청소년의 참여와 시민성 함양』. 파주, 한국학술정보.

김태준(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국제시민교육연구(ICCS)참여』. 한국교육개발원.

김필윤(2012). “사회과 수업 풍토가 학생의 정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교육과학기술부(2011).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7).

남채봉(2002).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정치의식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가나(2001). “학생 자치활동 참여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모경환, 이정우(2004). “좋은 시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6권, pp.63-82.

모경환 외(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2권 1호, pp.77-101.

성태제·시기자(2006).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신민철(2007). 『사회연구방법의 기초』. 서울, 창민사.

신정아(2005). “일상생활참여가 시민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오해섭 외(2013).『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Ⅲ-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옹진환(2007). “교사의 민주주의관이 학생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승종·김혜정(2011).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이은경(2008). “수업 풍토 인식에 따른 사회과 교사의 교수전략에 따른 이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정우(2005). “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한 사회과 교사들의 다양한 관점”, 『시민교육연구』, 제37권 1호, pp.127-148.

이현승(2004). “참여 민주주의에 필요한 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법과 정치」교과서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인희(2006). “사회참여학습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정치적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주성수(2003). “참여시대의 시민, 정부 그리고 NGO″, 『시민사회와 NGO』, 제1권 1호, pp.1-18.

차경수·모경환(2010). 『사회과교육』. 서울, 동문사.

최영훈 외(2008). “인터넷조사방법론의 가능성과 쟁점 Ⅱ: 2001년과 2006년 행정학회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비교를 토대로”, 『한

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pp.423-440.

최용규 외(2007).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수업까지』, 파주, 교육과학사.

천정웅(2013). “후기청소년의 특성과 청소년단체의 역할강화”, 『글로벌 청소년학연구』, vol. 3, pp.63-88.

한규석(2009).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한덕웅 외(2004).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홍성열(2004). 『사회과학도를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홍영란 외(2013).『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Ⅲ-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홍후조(2003).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서울, 문음사.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pp.179-210.

Ayto, J. (1990). *Dictionary of Word Origins*. New York: Arcade Publishing, p.402.

Almond, G. A., & Verba, S. (1965).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an analytical stud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Banks, J. A. (2004).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perspectives.* San Francisco: Jossey-Bass.

Bickmore, K. (2008). “Social justice and the social studies”, *Handbook of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ch. 10.

Ehman, L. H.(1969).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of Selected Educational Variables with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ournal*, Vol. 6, No. 4, pp.559-580.

_____(1980a). “Change in High School Students′ Political Attitude as Function of Social Studies Classroom Climate”,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ournal Summer*, Vol. 17, No. 2, pp.253-265.

_____(1980b). “The American School in the Political Socialization Proces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 No. 1, pp.99-119.

Fishbein, M., & Ajzen, I. (2011). *Predicting and changing behavior: The reasoned action approach.* Taylor & Francis.

Harwood, A. M. (1992). “Classroom climate and civic education in secondary social studies research: Antecedents and findings”,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20(1), pp.47-86.

Hess, D. E.(2002). “Discussing controversal public issue in secondary social studies classrooms: Learning from skilled teachers”,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Vol. 30, No. 1, pp.10-41.

_____(2004). “Discussion in social studies: Is it worth the trouble?”, *Social education*, 68(2), pp.151-157.

Langton, Kenneth P. and Jennings, M. Kent.(1968). “Political Socialization and the High School Civics Curriculum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pp. 852-867.

Litt, Edgar(1963). “Civic Education, Community Norms, and Political Indoctrination”, *Th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8*, pp. 69-75.

Marker, G. & Mehlinger, H.(1992). “Social Studies”, In Jackson(ed.). *Handbook of research on curriculum.,* pp.830-851.

Milbrath, Lester W. and M. L. Goel(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Parker, W. C.(1996). "Advanced ideas about democracy: toward a pluralist concep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Teachers College Record ,* Vol. 98, No. 1, pp.104-125.

_____ (2008). "Knowing and doing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ndbook of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pp.65-80.

_____ (2010). "Idiocy, puberty, and citizenship: The road ahead", *Social studies today: Research & practice*, pp.247-260.

Schulz. W., Fraillon, J., Ainley, J., Losito, B.,&Kerr, D. (2008).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Assessment framework. Amsterdam: IEA.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Losito, B.(2010, May). *First findings from the IEA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Struve, Patrick William et al.(1970).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adolescents: A study of students in a midwestern high school", *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march2-6.

Verba & Nie(1972b). *Participation in America :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31.

[부록 1: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법과 정치'과목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입니다. 귀하는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학생으로 사회 선택 과목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본 설문의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설문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e-mail을 통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고진영
E-mail: bleujy@naver.com

Ⅰ. 다음은 귀하가 고등학교 때 수강했던 사회 선택과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세요.

1. 귀하는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였습니까?

① 이수 (☞ ① 선택시 3-1, 3-2번 문항으로)
② 비이수 (☞ ② 선택시 2번 문항으로)

법과 정치 과목 *비이수* 학생 설문 문항

2. 귀하가 고등학교 때 선택한 사회 교과 과목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시하여 주세요.

① 경제	② 사회문화	③ 한국사
④ 세계사	⑤ 동아시아사	⑥ 한국지리
⑦ 세계지리	⑧ 생활과 윤리	⑨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과목 *이수* 학생 설문 문항

3-1. 귀하가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 과목 이외에 선택한 사회 교과 과목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시하여 주세요.

① 경제	② 사회문화	③ 한국사
④ 세계사	⑤ 동아시아사	⑥ 한국지리
⑦ 세계지리	⑧ 생활과 윤리	⑨ 윤리와 사상

3-2. 다음은 귀하가 수강했던 '법과 정치'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의 토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세요.)

질 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생님은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자주 토론하게 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은 학급에서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은 토론할 때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4. 토론할 때 교실의 분위기는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귀하의 정치참여의도와 관련된 진술입니다. 문장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세요.

1. 귀하가 성인이 되면,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 항목들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세요.)

질 문	확실히 참여함	아마도 참여함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1. 지역수준에서의 투표참여 (예: 기초 및 광역의회선거 등)	①	②	③	④
2. 국가수준에서의 투표참여 (예: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①	②	③	④
3.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	①	②	③	④
4.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①	②	③	④
5. 정치단체 가입	①	②	③	④
6. 노동조합 가입	①	②	③	④
7. 지역 및 시 선출직 후보 출마	①	②	③	④

2.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세요.)

질 문	확실히 참여함	아마도 참여함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1. 신문사에 편지 보내기	①	②	③	④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달기	①	②	③	④
3. 선출직 공무원 접촉하기	①	②	③	④
4. 비폭력 집회 참여	①	②	③	④
5. 진정서 서명 모으기	①	②	③	④
6. 상품 불매 운동하기	①	②	③	④
7. 벽에 항의 표어 스프레이 페인팅하기	①	②	③	④
8. 도로봉쇄하기	①	②	③	④
9. 공공건물 점거하기	①	②	③	④

Ⅲ. 다음은 귀하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하여 주세요.

질 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부 정책이나 정치인들에 대해 가족들과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집의 분위기가 민주적인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교에서 학급임원선출, 학급토론, 회의 등 나의 의견을 통해서 무엇인가 결정하는 경험을 자주 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분위기가 민주적인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TV에서 정치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인터넷으로 정치 관련 기사나 정보를 자주 검색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정부 정책이나 정치인들에 대해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귀하의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현재 연령은? ( )세

3. 귀하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는? ( )대학교

4. 귀하의 고등학교 때 평균 사탐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2등급 ② 3등급 ③ 4-5등급 ④ 6-7등급 ⑤ 8-9등급

5. 귀하의 가정의 경제상황과 가장 비슷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다
② 경제적으로 꽤 풍족하다
③ 그냥 살만하다
④ 생활하기 꽤 어렵다
⑤ 생활하기가 아주 어렵다

Abstract

The Effect of the 'Law and Politics' class for the Adolescent'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Politics

Jin Young Ko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odern society has many social problems such as wars, environment destruction, crimes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etc. Seeing from the standpoint that they must solve these problems socially and develop democracy politically, it can be said that our society requires citizens who have interests in the problems of community and participate.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the adolescent in our country was not high according to typical studie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adolescent are the leading actors that will lead our society in future. Hence, it is necessary to let them have the quality of democratic citizen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Hence,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social studies education,

which is one of formal curricula of school education, on the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politics is investigated. In particular, the 'Law and Politics' which is an elective subject in social studies in high schools, is aiming to cultivate the attitude of democratic citizens who devote themselves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politics.

Hence,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the 'Law and Politics' class on the adolescent's intention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is investigated. For this purpose study problems are set as followings:

Study problem 1) Does attending the 'Law and politics' class actually influence the adolescent's intention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Study problem 2) Does the class atmosphere, which the adolescent perceived in the 'Law and politics' class, influence the adolescent's intention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To solve these study problems survey has been made to the 559 freshmen of liberal arts colleges throughout Korea, who graduated their high schools in February, 2014 after taking social studies class. As 'Law and Politics', which is an elective social studies subject, has been taught in high schools from 2012 under the 2009 education course revision, the students who studied the subject 'Law and Politics' are those who graduated high school in February, 2014.

For the stud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as been done having 'the taking of the subject Law and Politics class' and 'the score of open atmosphere of Law and politics clas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having the adolescent's intention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as dependent variable.

The analysis result of the first study problem shows that taking

the 'Law and Politics' class is a significant variable at the level of $p<.05$ in the adolescent's intention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y item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in more detail, T-test has been done and it is found that the score of the students, who took 'Law and Politics' class, is higher in the legal or illegal protesting activities such as badging, boycott campaign, road closing and public building occupation to express personal opinions.

The analysis result of the second study problem shows that it cannot be verified whether the class atmosphere that the students, who took the 'Law and Politics' class, perceived influences the adolescent's intention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or not. It is thought to be caused by the fact that students in high schools in Korea do not experience many controversial issues discussion owing to the entering university oriented classs so that the class atmosphere related with the controversial issues discussion teaching does not appear.

Some suggestions are wished to be given on the basis of this study as followings:

Firstly, they hav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social studies as the education of citizens and develop and practice the curriculum in social studies that can contribute to cultivate the quality of citizens in our country on policy level.

Secondly, the class atmosphere has to be formed that the adolescent can cultivate the quality of democratic citizens overriding the classs oriented to entering university.

And studies on the class atmosphere for the growing of democratic citizens have to be made actively, and such class atmosphere has to be settled in schools as soon as possible.

keywords : law and politics, formal curriculum, class atmosphere, controversial issues discussion, participation in politic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politics

Student Number : 2012-21385